

제4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2012. 05. 23(수)

CDI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제4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콜로키움(Colloquium)이란 "모여서 말하기, 대화하기" 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 의미로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공동 토의하는 방식을 의미

1. 행사개요

- 일 시 : 2012년 5월 23일(수) 14:00 ~ 16:00
- 장 소 :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층 회의실
- 대 상 :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연구원, 교수, 실천가, 공무원 등

2. 행사목적

-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이론 및 실천방안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사업의 발굴 및 정책지원 방안 등

3. 행사순서

14:00~14:05	개회사
14:05~14:10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소개
14:10~14:40	발 표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 전주 사회경제네트워크 활동 사례 중심으로 서성원 운영위원장 (전북사회경제네트워크)
14:40~15:10	발 표 2. 사회적경제조직과 마을만들기 -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 남철관 사회적기업국장((사) 나눔과 미래)
15:10~15:20	휴 식
15:20~16:30	토 론 좌 장 송두범 센터장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토 론 강영희 기획이사(대전 풀뿌리 사람들) 곽재윤 교육홍보팀장(충북사회적경제센터) 참석자 전원

목 차

발 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 전주 사회경제네트워크 활동 사례 중심으로

서성원 운영위원장 (전북사회경제네트워크)1

사회적경제조직과 마을만들기

-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

남철관 사회적기업 국장((사)나눔과 미래)

토 론

토 론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곽재운 교육홍보팀장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제4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발 표 1.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서 성 원 운영위원장

전북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서성원(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I. 사회적경제활동에 대한 몇 가지 전제

1. 사회적경제 개념 및 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경제 라는 명칭이 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대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쓰이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묶인 민(民)·관(官)의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동상이몽’을 꿈꾸게 되고, 그 결과가 상호 갈등과 불신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자본주의가 아닌 연대와 협동의 경제를 이야기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의 협업과 책임이 수반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추진되는 협력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동이 갖는 실천적 합의에 대해 참여주체들 간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지역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통념적 이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중간지원조직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행자부(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마을만들기 사업)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은 한정된 인력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업무의 과중함이 있고, 위탁주체가 요구하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확대와 수익창출을 위해 현장을 채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민관 협력도 필요하고 중간지원조직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활동이 목적이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인 위탁 운영을 우선시하게 되어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를 고민할 때는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각 활동 주체들과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간의 활동구심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민관이 함께 모여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원기관을 민간위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한 전북지역 경험

전라북도의 경우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회적기업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2010년)하면서 지원기관 업무가 중심이 되다 보니 본래의 활동목적을 상실하였고, 지원기관 운영이 부실화되어 2011년에는 도 출연 경제통상진흥원이 노동부 지원기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고, 이후 관이 민을 불신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민간의 독자적인 자립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기관 위탁을 받지 못한 네트워크 조직은 자기 활동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의 경험은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를 조직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단체의 합의와 동의를 위한 1년여 교육 및 토론 과정이 있었고, 민간의 독자적인 사업 및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노력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한 민간조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II. 전북지역에서 고민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개념과 필요성

1.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의 소중한 경험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이라 생각
- 그러나 현장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의 방침과 같은 일부 전문가, 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벽은 너무 높았고 ‘자립’을 강요
- 더욱이 성장 중심의 개발주의, 토지개발 중심의 지역개발이 난무하는 지역의 상황은 개별적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역은 점점 시장과 중앙에 종속

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배경과 필요성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 영역의 다양한 정책 사업의 등장
- 이러한 정책 사업에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경쟁중심 시장체계에서 이른바 호혜와 연대에 의한 ‘보호된 시장’ 구축의 가능성과 필요성
- 홍성, 원주 등의 지역공동체의 실험에서부터 실천적 전략으로서 새로운 개념과 방식의 지역사회의 대안 마련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및 적극적 대응

3.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개념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개인 활동가, 기관 및 단체의 모임
-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체 회원의 참여로부터 조직
- 사업도 네트워크가 직접하기보다는 참여하는 개인, 기관, 단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진행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행정과 대응, 내부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을 공생과 협력의 사회로 전환

III. 전주(지역근거)+사회적경제(활동목적)+네트워크(조직형태) 조합의 의미

1. 지역이 왜 전라북도가 아닌 전주인가?

통상 우리가 경험한 민간차원의 네트워크 조직은 광역 단위의 조직이어야 했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네트워크 조직도 광역 단위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경제를 연대와 호혜의 가치에 입각해서 조직하는 활동이고 이러한 활동은 우선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튼튼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해서 전주라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을 조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역단위의 네트워크 조직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선은 각 기초지자체 마다 사회적경제활동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조직되고 이러한 활동주체들이 광역단위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을 요구했을 때 조직되어야 광역단위 조직이 현장에 근거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역단위 지원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교육, 홍보, 조직, 기획사업과 함께 기초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2. 왜 사회적경제 조직화 라는 활동목표로 묶이게 되었는가?

사회적경제가 갖는 실천적 함의를 통해 네트워크 활동의 사회적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목적이 시장자본주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대안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자립경제 실현이라는 사회적경제의 지향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유통대기업의 지역경제 침탈에 맞서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와 개발중심의 지역성장논리에 맞서 지역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20대 80의 사회가 1대 99의 사회로 부의 집중과 빈곤계층이 증가하는 반면 사

람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상품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경제 생태계 구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안적 경제활동 방식을 조직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물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의 풀뿌리공동체운동 등을 조직하는 공통분모로서 사회적경제 활동의 가치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3. 왜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인가?

각 제도 영역별 민간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조직되면서 사회경제네트워크 조직도 유사한 조직으로 이해되어 네트워크 조직의 과잉이라는 지적과 기능 중복에 따른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회경제 활동을 위한 민간조직의 형태를 네트워크 형태로 조직한 것은 조직의 고유 역할을 지역 내 사회경제 활동조직을 지원하고 조직간 연대와 소통의 결절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사업을 집단으로 조직하는 매개자 역할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국을 강화하기 보다는 각 사업위원회 및 업종네트워크는 간사단체를 두어 참여단체의 책임과 활동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V.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로서 사업목적과 역할

1. 사업목적

전주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조직이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활동조직간 대안적 경제활동을 통해 성장의 새로운 대안 제시와 지역 자립경제를 실현하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조직하고, 시장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보완을 넘어 대안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2. 역할

- 사회적경제 활동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자원연계, 연대와 호혜 원칙)
- 사회적경제 활동조직간 소통과 공동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결절점
(업종 및 지역네트워크 활동 지원)
- 현장의 필요를 종합하여 공공자원과 연계하는 민관협력사업
(공공시장 발굴과 요구, 기획사업 개발)
-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의제 발굴 및 조직화(지역연대금고, 사업발굴 등)
-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및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

V.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로서 주요사업

1. 교육사업

- 사회적경제아카데미(SK연계 지역살림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전주시 지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심화과정)
- 사회적경제 학습을 위한 지역 활동가 스터디 모임(월 1회 진행)
- 사회적경제 동아리 모임 조직 중(전북대학교)

2. 홍보사업

- 전주시 사회경제 시민한마당(월 1회 정례회 진행 예정)
- 전북지역 언론종사자 대상 사회적경제 워크숍 진행 예정
-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활동보고(격주 메일발송)
- 시민사회단체 대상 사회적경제 홍보 교육 진행

3. 조직사업

- 업종별 네트워크 조직사업
- 돌봄서비스 분과 : 비영리 공급기관간 협력사업 모색 및 비영리공급기관 블록 구축
- 환경재활용 분과 : 시군(완주군, 정읍시 논의 시작) 선별장 민간위탁 및 소형가정 재활용시스템 구축
- 주거복지 분과 : 전주시 마을만들기사업(마을만들기, 해피하우스, 도심재생센터사업)의 협력방안 모색과 도시형 마을만들기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 협동조합 분과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간 서비스 이용 협력, 소비자생활협 지역물류비율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등, 협동조합 시민강좌 3회 공동 기획
- 문화예술 분과 : ‘아리’ 라는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협력사업 진행 중
- 시군별 순회 사회적경제 포럼 개최

기초 지자체 별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논의의 확산하고 사업주체를 형성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이 조직될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제안하고 활동을 지원

4. 기획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간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사사업
-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위 구성
-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원주 방문 및 공동 워크숍 진행 계획)

VI.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로서 고민과 과제

1. 사회적경제활동의 구체적인 사업 조직화

사회적경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조직된 네트워크 구성단위가, 활동

조직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사회적경제 활동의 결합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개별단위가 공동사업으로 조직되는 사업작품 조성

2. 네트워크 참여 단체 및 개인의 활동력 고양 방안

개별단체 및 개인의 이해와 요구의 충족여부에 따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존 관행으로 부터 벗어나 사회적경제활동의 조직화 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자임하는 활동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당위적 요구가 아닌 연대와 협동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근거와 비전 제시가 필요하고 사업을 통해 증명

3. 지원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및 방법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민관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활동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었거나 관이 주도하는 사업환경 속에서 민관협력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고민(사회적경제 방식의 발전모델을 실천적으로 증명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

4.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과 경제활동으로의 조직화

사회적경제 활동에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제활동 주체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블록 확대

5. 사회적경제 활동의 참여자 및 지역주민 확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조직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주체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상에만 존재하는 소유와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조직의 운영과 교육사업이 혁신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및 기획사업이 준비될 필요성

6. 장기적 비전과 발전 전망 수립

업종과 업종간 네트워크, 지역간 네트워크, 민민 민관 연대사업의 주체, 자원의 연결과 의제 발굴, 사업에 따른 협의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의 민간 구심으로서 지속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확보 방안 필요

VII. 충남사회적경제 발전의 시사점

1. 네트워크와 지원조직간 역할의 명료화

지원조직의 경우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라는 정책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고, 사회적기업 인증지원업무를 비롯한 위탁업무의 과중함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관련 주체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조직이 자기 사명을 분명히 하고 지원기관이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관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지원기관의 고유업무를 통한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 모색

지원기관을 위탁받은 모기관의 정체성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고 지원기관의 사업내용이 차이를 보입니다.

지원기관에 허락된 교육사업, 홍보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건강한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지역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올바른 가치를 알려냄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네트워크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의 결절점 역할 수행 필요

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 활동의 민간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조직의 수요와 욕구에 대한 확인과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여 연결하고, 동일 업종간, 이종 업종간 공동사업의 필요를 제안하고 사업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조직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조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활동이 지역주민의 수요와 욕구에 기반하여 대안적 문제해결 방법을 조직하는 것이고 그 활동의 물적 기반이 지자체의 공공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현실에서 충남의 민관협력 사례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민원요구가 높은 분야부터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예산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개방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이 필요하듯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의 담당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로서 상호간 신뢰 필요

그간의 민관 연대사업의 경험에 비추어 관이 바라보는 민간단체, 민간단체에서 바라보는 공무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리라 판단됩니다.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일을 발굴하고 사업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활동가들이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공무원을 설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거를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간단체는 행정집행의 동원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활동은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창조적 자발성과 헌신성에 기초해서 성장합니다.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경과보고서

I. 추진배경

-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자활사업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각종 사업이 제도화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실업·빈곤 극복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함.
- 유사한 사업내용의 중복과 실적을 위한 상호 경쟁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이 오히려 독점과 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역설로 나타남
- 이러한 현장의 문제는 활동가들로 하여금 초기의 문제의식에 대한 확인과 새로운 대안을 찾아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근 사회적경제 운동, 풀뿌리지역공동체 운동 등 지역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음
- 전북지역에서도 대안경제 모색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이 모여지면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2011년 초부터 시작됨

II. 진행 경과

1.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산하 실무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 사회적경제 입문학교

교육 회차 및 일정	교육 내용	강 사
1차 (1월7일, 금요일)	사회적경제의 이해 1 _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역사 교육내용 평가 및 질의응답	장 원 봉 사회투자지원재단
2차 (1월13일, 목요일)	사회적경제의 이해 2 _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교육내용 평가 및 질의응답	하 승 우 풀뿌리 자치연구소
3차 (1월14일, 금요일)	사회적경제의 이해 3 _ 사회적경제 실제 사회적경제 입문과정 종합평가 및 질의응답	김 유 숙 사회투자지원재단

- 사회적경제 심화교육

교육회차 및 일정	교육주제	강 사
1회차(3월 15일. 화)	조직의 사명/가치/목적/활동 이해하기	임 동 현 (사회투자지원재단)
2회차(3월 29일. 화)	조직의 이해관계자 확인하기	임 동 현 (사회투자지원재단)
3회차(3월 30일. 화)	사회적부기표 작성 및 실행계획 수립	임 동 현 (사회투자지원재단)

2.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주최), 전주시(후원)으로 사회적경제 함께 배우기 교육 실시(전북지역 관련 실무자 대상)

회 차		교육 주제	교육 요지	강 사
1회차 5. 24. 화	1강좌	실업운동의 현황과 과제	각 영역별 태동과 성장과정을 통 해 운동적 가치를 이해하고, 현 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전략(사회적 경제, 혹은 지역화 전략)을 확인 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동을 중 심으로 상호 연대활동의 계기 마 련	신명호 소장 사회적경제연구센터
	2강좌	자활운동의 현황과 과제		박용수 국장 한국자활기관협회
2회차 5. 26. 목	1강좌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		서성원 이사 사람과 환경
	2강좌	마을만들기사업의 현황과 과제		임경수 대표 (주)이장
4회차 6. 2. 목	1강좌	협동조합 운동의 현황과 과제		주요섭 이사장 정읍·전주 한살림
	2강좌	풀뿌리공동체운동 의 현황과 과제		강주영 자문위원 참여자치전북연대
3회차 5. 31. 화	1강좌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사회적경제 필요성	시장경제 모순구조의 진단과 대 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특성과 조직방식을 이해	김기섭 상무 두레생협
	2강좌	전북지역의 당면 사회문제와 대안적 해결방안	전북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전략 모색	이성호 연구원 호남사회연구원
5회차 6. 7. 화	1강좌	원주지역 사회적 경제 지역화 모델	원주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 네트워 크 조직방안 및 사업내용 이해	최혁진 상무 원주의료생협
	2강좌	마을기업 사례로 본 사회적경제 조직화 사례	소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 조직 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화 이해 및 실천 전략	최 준 단장 LH마을형사회적 기업 지원단

- 전주시에서 본 교육사업을 공동주최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민간단체간 논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서 전주시를 후원으로 하여 교육사업을 진행 함.
- 교육종료 후 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주
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기로 함

3. 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

○ 민·관 협의과정

- 교육사업 종료 후 후속작업 논의를 위하여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조직을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 함.
- 민간 영역 : 임경수(사회적기업 이장 대표), 김명륜(전 SK사회적기업지원팀),
서성원(사회적기업 사람과 환경 이사)
- 전주시 : 사회적기업 담당 계장, 담당자
- 논의를 거쳐 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사업 계획에 대하여 합의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기로 함.

○ 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구성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재원	사람과 환경	김영호	전주 한울생협
김영찬	전주주거복지센터	박준홍	전주 덕진지역자활센터
김관무	맑은누리	조용희	전주 생명지역자활센터
김진왕	(전)지역아동센터전북지부	육이수	전북실업자지원센터
유두희	전주시니어클럽	김명륜	(전)SK사회적기업팀
박시도	전주 술 박물관	서성원	사람과 환경
임상훈	전주CBS방송국	임경수	(주) 이장
김인순	전주시정발전연구원	한혁준	정읍·전주 한 살림 사무국장
고선미	전주 의료생협	김양중	이 음
노승해	전주사회서비스센터	고은하	전북광역자활지원센터
정승철	우리노인복지센터		

4. 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워크샷

회차	일시	내용	강사
1차	7월 12일(화)	○ 자기 소개와 상대방 알기 ○ 지역연대의 필요성 찾기 ○ 이 일의 가치 찾기	임경수 이장 대표
2차	7월 14일(금)	○ BSC의 이해 ○ 우리가 해야 할 일 찾기 ○ 전략 목표 찾기	
3차	7월 19일(화)	○ 전주 사회적경제 자원 찾기 - 우리에게 있는 사회적경제 자원 -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 자원	
3차	7월 21일(화)	○ 전략목표에 기초한 사업 찾기 ○ 주요 추진과제 설정 ○ 조직형태, 네이밍, 단계별 사업계획, 예산 등	

5. 제도·영역별 사회적경제 토론회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사례 학습을 통해 네트워크 참여주체들의 활동계획 구체화
- 사회적기업, 자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동분야 실무자들이 타 영역의 활동내용을 이해하고 상호 연대와 협력방안 모색
- 네트워크 활동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을 확대하고, 업종과 사업을 다양화 하여 사회적경제 활동블럭 규모화

회차	1회차(9월1일)	2회차(9월 8일)	3회차(9월 15일)	4회차(9월22일)
주 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마을사업(C.B)과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주 발제자	박종효(충북 일하는 공동체)	민동세 (광진주민연대)	임경수(이장)	최혁진 (원주 협동조합)
사회자	김성주 (도의원)	윤찬영 (전주대 교수)	김경섭 (전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최인규 (전북실업센터 이사장)
토론자	강재원 (사람과 환경)	박준홍(덕진자활)	임경진(마을사업 지원센터)	한혁준 (전주 한살림)
	노승해(전주 사회서비스센터)	조용희(생명자활)	김인순(전주시정발 전연구원)	고선미 (전주의료생협)
	임상훈(CBS)			
	구성은 (문화경제위원장)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	서운근 (도시건설위원장)	오현숙 (도시건설위)

6. 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토론회 개최(10월 27일)

- 목적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진행된 준비위원회 워크샷, 주제별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종합하여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사업과 조직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고, 지역 활동가들과 토론 협의과정을 거쳐 조직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내용

- 주제발표 1 : 전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현황과 과제(임경수 이장 대표)
전주지역 사회적경제 활동조직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사회적경제 활동 내용 제시
- 주제발표 2 :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업및 조직 방향(서성원 사람과환경 이사)
네트워크 사업목적, 방향, 사업내용/조직구성의 원칙, 대상, 운영방향 제안
- 토 론 자 : 주요섭(전북한살림 이사장), 최인규(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최준(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간사)

7.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출범식(11월 29일)

- 사회적기업 지원과 사회적경제 활동에 동의하는 전주지역 민·관·산·학 단체 및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가칭) ‘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여 그 활동의 시작을 지역사회에 알림
- 조직구성은 운영위원회, 지원단, 업종별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하고 각 조직 활동을 총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간사단체(혹은 간사)를 두되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되 우선 전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향후 전북지역 여타 시·군의 사회적경제 조직화사업의 활동과 협력하여 사단법인 준비

(가칭)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사업계획서

2011년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준비위원회

1. 사업목적

전주시에서 사회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전주시청 등 행정기관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동적 문화를 발전시키고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협력적 사업을 추진한다.

2. 기본방향

- 가. 전주시의 사회경제영역 단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 나. 전주시의 사회경제영역 단체의 정보공유와 소통의 민주성을 전제로 한다.
- 다. 전주시의 사회경제영역 단체들의 신뢰를 통해 연대한다.
- 라. 전주시의 사회경제영역 단체들이 동등한 권한과 책임으로 참여한다.
- 마. 행정기관과는 건강한 협력관계를 만든다.
- 바. 전주지역사회의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대안조직을 지향한다.

3. 전략적 목표

재무적 관점	전략목표 : 조직의 성장이 아닌 유지관리 • 활동재원마련의 다각화, • 재무상황에 따라 활동의 유연화
지역주민 관점	전략목표 :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 참여단체의 회원 및 참여자 증가 •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
참여단체 관점	전략목표 : 참여단체의 확대 및 협업의 증가 • 참여단체의 다양성 증가 • 참여단체간 협업 증가
학습/성장 관점	전략목표 : 사회경제적 전망을 가진 활동가 양성 • 참여단체 내에 사회경제적 활동가 증가 • 지역사회내에 멀티형 활동가 양성

4. 주요사업계획

구분	주요사업	비고
네트워크 구성 및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별 영역별 사회적 경제 토론회 • 전주 사회적경제 토론회 • 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출범식 	
재원마련을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회원, 단체회원제도 구축 • 지자체의 지원사업 발굴 • 공모사업 발굴 • 전주 향토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 기금사업 제도화 	
사회경제영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박람회 등의 시민참여 이벤트 개최 • 사회적 경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 소식지, 홈페이지, SNS 활용 • 언론·방송을 통한 홍보 	
네트워크 참여단체간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네트워크 참여 단체 확대 • 참여단체간 교류, 소통 활성화 • 전주 사회경제자원 지도 그리기 • 참여단체가 협업 활성화 • 참여단체간 내부거래 활성화 • 참여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 	
활동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개최 • 참여단체의 활동 이해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 활동가 육성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 • 활동가의 휴식, 재충전 프로그램 개발 	

전주 사회경제네트워크 조직운영 계획

1. 조직사업 목적

전주지역 사회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에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발굴·조직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네트워크 참여조직간 사회적경제 활동을 구체화함으로써 전주지역 사회적경제 블록의 확대·강화에 기여

2. 조직대상

- 사회적기업, 자활, 마을만들기(CB),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활자립장 등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회경제 조직
- 노동조합, 실업단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진보적 정치세력 등 대안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기관 및 단체
- 관련분야 연구자, 언론종사자, 정치인, 재능 기부나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지역 활동가 중 사회적경제에 동의하고 활동을 희망하는 사업단(구체적인 경제활동 주체) 및 개인

3. 조직운영

☐ 업종별 네트워크 조직

전주지역 사회적경제 활동조직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네트워크를 조직하되 해당 사업주체들의 합의수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현재 생활협동조합, 주거복지, 돌봄서비스, 문화·예술 분야 네트워크 조직 진행 중)

☐ 특별위원회

교육, 지역조사, 각종 기획사업 등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관련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 사무국

회원조직, 업종별 네트워크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구성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며 사무국장 운영위원회 참석

□ 정책위원회

지역 내 관련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사회적경제활동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활동의 체계적 논리화

□ 운영위원회

업종별 조직대표, 특별위원회 대표, 사무국장, 정책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책임을 자임하는 활동가들로 구성하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수행

□ 공동대표단

공동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 발휘(3-4인으로 구성)

□ 회원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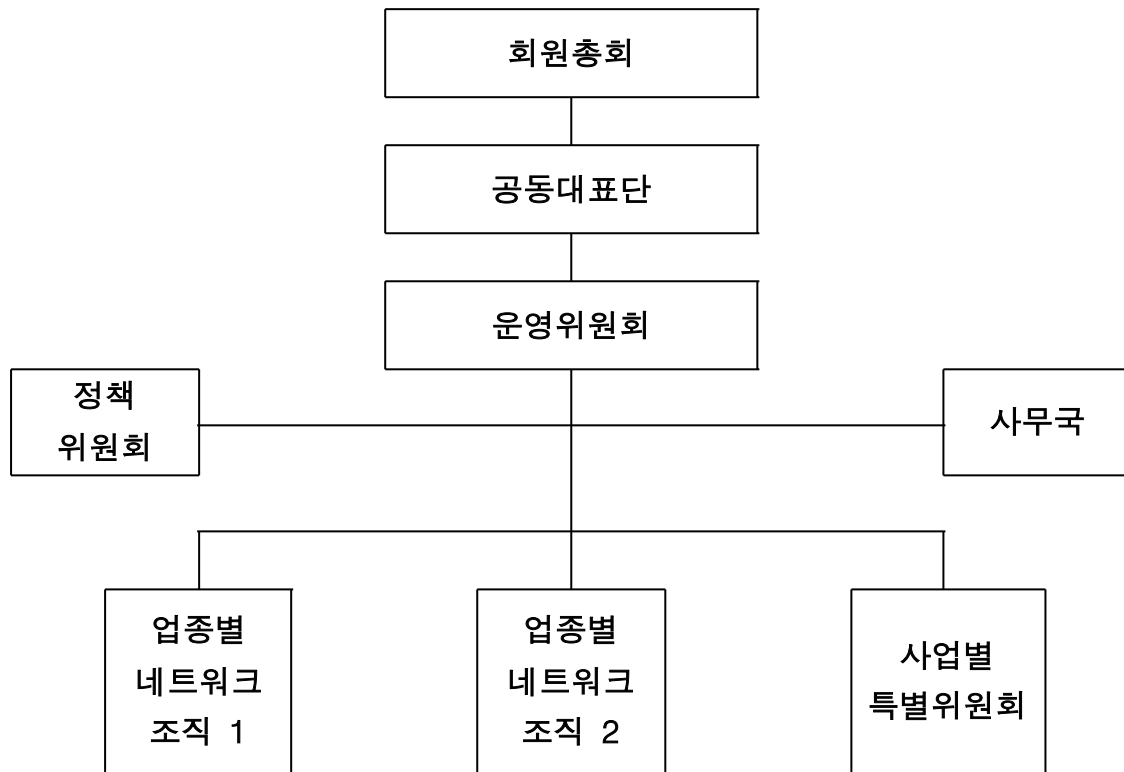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최고 의사결정 구조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

4. 조직 발전전망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직은 사회적경제 블록의 확대와 활동의 다양화를 통해 기간조직이 성장하는 열린 조직을 지향

조직의 실체를 지역사회로부터 동의 받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향후 전북지역 각 사·군 사회적경제 활동의 조직적 성과를 통합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추진

5. 조직도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2012년 사업계획서

□ 2012년 사업 기초

- 2012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자본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이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자본주의 4.0’ 이라는 자본의 지배질서 유지가 아닌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한 대안경제 활동모색
-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과 한미 FTA 시행으로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자립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각 부처별로 고립·분산되어 진행되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역을 중심으로 재 조직화를 모색하고,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쟁과 독점이 아닌 연대와 호혜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활동의 실체를 현실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
- 신자유주의 노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로 전락한 현실의 반성으로 각 지역별로 조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조직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운동의 활동주체 형성
-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위기 현실화로 예상되는 국민 절대 다수를 포함한 저소득 노동취약계층 삶의 황폐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이 지역의 생활경제 속에서 ‘대안적 경제활동’ 으로 지역사회에 동의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2012년 중심 사업과제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에 기초한 실천활동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조직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사회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련 활동 주체들로부터 조직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동의 받고,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운동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첫째. 사회적경제 논의의 확산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둘째. 연대와 호혜의 가치에 입각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조직 지원

셋째. 사회적경제 실무자 및 참여주민 교육을 통한 활동주체 역량강화

넷째. 민간 주도의 자립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자원 발굴

□ 사업과제별 세부 사업내용

1. 사회적경제 논의의 확산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신문·방송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내용 홍보

도내 방송사 및 언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획보도 및 활동내용을 홍보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촉진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대상 사회적경제 설명회 개최**

해당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설명회를 조직하여 이해를 높이고 소속된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촉진하고, 구체적인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진행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개최**

전주시내 적합지역을 선택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전주 사회적경제 시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한마당 행사를 정례화(분기 1회) 할 수 있도록 준비 주체들의 동의와 예산 확보

○ **지역 실무자 및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경제 포럼 운영**

관련 실무자 및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활동조직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월 1회 정기적인 포럼을 운영하고 향후 전북지역 사회경제 네트워크 조직화에 기여

2. 연대와 호혜의 대안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동조직 자원조사사업 및 내부거래 지원**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동조직에 대한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조직간 내부거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결과를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유하고 내부거래를 위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거래 활성화 지원

○ **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경제 조직간 교류 활성화 지원**

사회경제 조직간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관련 단체 및 주민들과 사회적경제 활동내용을 공유하고자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 격주로 발송하는 ‘전주사회경제 활동보고’에 회원조직들의 활동내용과 제도 및 정책 동향, 연구 및 토론 자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기능 강화

○ **업종별 네트워크 활동 지원**

업종별, 업종간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조직 중인 사회서비스, 주거복지, 문화·예술, 소비자 생협, 환경·재활용 등 업종별 네트워크 모임과 긴밀히 결합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연계.

3. 실무자 및 참여주민 교육을 통한 활동주체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진행**

실무자들의 사회적경제 활동능력 배양 및 사회적경제 활동가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근거한 지역 활동가 교육사업을 자활사업,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연 2회 시행

○ **선진지 견학을 통한 활동주체들의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선진적 사회적경제 활동지역을 견학하고 활동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전주지역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원주 현장방문 및 실무자들과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지역 대학에 사회적경제 동아리 활동 조직 지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에 동아리 활동을 조직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하고자 전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아리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 지원

○ **사회경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풀 구성**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비 대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 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내에서 유기적인지원체계 구축

4. 민간 주도의 자립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재원 발굴

○ **단체, 개인회원 및 후원회원 발굴 및 회비제도를 통한 재정 마련**

회원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와 회원 회비구조를 통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2년 12월까지 단체회원(30), 개인회원(300)을 목표로 회원확보를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에 참여 동기 부여

○ **건강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건강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추진하고자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협력하고 민간단체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전주사회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조직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조직 공모사업 개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을 지원조직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지역연구과제 공모사업, 함께 일하는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지원조직의 공모사업에 지역사업 적극 제안

○ **지역 내 향토기업의 사회공헌사업 개발 및 지역연대금고 준비**

전북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사업의제를 발굴하고 전주사회경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북지역 소재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연대금고 설립 준비

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한국 사회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급격한 경제, 사회, 문화적 변동을 경험하였다. 일자리 부족은 만성화되어 중산층이 얇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첫 번째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는 우리 경제를 ‘글로벌화’ 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 자본가에 의해 비롯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우리나라의 서민의 삶까지 영향을 미쳤다.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시장자본주의는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질병, 재해, 차별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돈이 돈을 버는’ 말 그대로의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유지하는 것마저 힘들어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경쟁력과 효율의 잣대로 지역을 재단함으로써 지역이 가지고 있던 사회, 문화적 가치는 무시되었고 지역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소모품이 되었다. 이는 국책사업이나 대기업 자본을 지역에 유치해야만 지역이 잘 살 수 있다는 ‘지역종속주의’를 휩쓸게 했고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지역경제는 지역의 청년들을 서울 청량리의 쪽방 고시원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지난 4,5년간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참여하였으나 일자리 숫자에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장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고 ‘지역화’ 만이 글로벌화하고 있는 ‘시장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주지역에서 인간다운 세상,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 노동 및 실업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가들은 시장자본주의의 반사회적인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배려와 사회연대의 정신으로 공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고자 하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체계는 창의력과 혁신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활동가와 기업가를 통해 개인의 노동의 가치가 자본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재분배되고 더 나아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토지와 금융을 공동체화 함으로서 더 이상 ‘돈이 돈을 버는’ 경제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가 더 큰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부를 재순환하는 ‘사회적 경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시민사회, 언론, 지역의 기업가,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를 비판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실천적 행동에 중심을 둘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공생적, 지역적 가치를 중심에 둔 기업가를 양성하고 이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경제조직을 창조하고 상호연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을 지역사회에 확장해 나갈 것이다. 권력감시와 투쟁 중심의 시민운동을 자율과 참여의 주민운동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민주적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주지역의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동이 ‘시장자본주의’의 대안적 지역사회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과 연대해나갈 것이다.




제4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발 표 2.

사회적경제 조직과 마을만들기

남 철 관 사회적기업국장
(사)나눔과 미래





(지)나눔과미래
정보기술교육민들끼리원센터 남창관



지역사회/마을과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여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서민층의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다.

1) 양극화의 심화

외환위기를 계기로 심화된 소득 및 교육 양극화(무너진 교육사다리)
고용 불안정의 심화와 가계 재부구조 악화
심각한 고령화, 개방 등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침체

2) 사회적약자의 정주여건 악화

대도시 전세폭등, 지방 집값상승 : 멀어지는 내집 마련의 꿈
개발사업으로 인한 낮은 재정삭을, 농촌(도심주변부) 주거 공동체 파괴

3) 지역경제의 침체와 성장 과실의 불균형 배분

무분별한 개발로 영세상공인 생계기반 상실과 대자본의 소매시장 장악
구도심 지역의 침체 : 상실된 경제적 활력과 지역쇠퇴

→ 다중적 위기 상황의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의 필요와 주민의 요구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목적과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목적'의 추구)

예)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2011년 신설 제도)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사실상 혼합형과의 차별성이 미비하고, 인증기준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육성정책은 양적기준(인증기업수, 매출/이윤, 고용창출 등)에 맞추어져 있고, 설립과정과 동기에서의 '지역중심성'과 사업효과의 '지역사회 파급성'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2012년「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 전년도 사업 평가 및 재심사 기준 》

○ 심사지표 :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심사지표별 착안사항

▶ 1차년도 사업목표(매출, 이익, 일자리 등) 달성여부, 자립가능성 등

▶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 전년도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심사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단체는 퇴출유도

《 신규사업 심사 》

전체사업 중 지역사회와 직접 연관된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항목의 배점이 20점에 머무르고 있음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향후 선정(설립동기,지역자원 활용정도등) 및 운영평가시 지역연관성 강화 필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5소(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 향후 정책전개과정에서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도출될 필요있음 (지역사회의 필요와 수요와 무관하게 조합원의 수요 충족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 있음)

지역사회에서 마을만들기의 필요성과 실례

- 통합적 마을재생의 관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

지역사회에서 마을(동네)의 의미

1994년, 봉천동 달동네

- 우리 동네라는 인식, 사람과 사람 : 없어진 마을



지역사회에서 마을(동네)의 의미

2004년, 홈리스가 정착한 동네 : 만들어지는 마을
-더불어 살아가기, 친절 되어주기



사진출처 : 살림터



지역사회에서 마을(동네)의 의미

2007년, 오래오래 사는 동네를 꿈꾸는 장수마을의 실험
“떠나지 않고, 죽을때까지 살고 싶어” : 지속되는 마을



사진출처 : 장수마을대안개발모임/동네목수

지역사회에서 마음(동네)의 의미

2011년, 주민들의 마을을 녹인 7세 꼬마
“아파트에 이사왔어요” : 인정을 그리워하는 마을



사진출처 : 중앙일보

마을만들기는 ?

주민이 하는 것

- 참여없이 안되는 일
-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마을만들기는 ?

힘과 지혜, 자원을 모아야 하는 일

주민과 주민모임, 시청/구청/사치센터/사치위원, 구의회와 구의원, 민간법인과 단체, 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일반기업, 대학, 전문가



마을만들기는 ?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일

끝을 정해놓고 성가를 내려고 하는 '사업'추진과는 달라야 ...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기초로 여럿이 내딛는 한걸음



마음만들기는 ?

갈등과 이견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로 다른 생각을 드러내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자체가 마을만들기



마음만들기는 ?

그래서, 살기 좋아지는 동네가 되는 것

- 돈독한 이웃과의 관계
- 살기 편해진 집과 골목
- 새로 생기는 일자리와 마을경제
- 복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기

➡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너무 좁고 수요가 희소한 '작은시장'이
란 관점의 탈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재생의 융합 : 통합적 마을재생

□ 물리적재생 (physical regeneration)

: 주택개량과 관리, 필지 또는 블록 단위의 신축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거주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상태

□ 경제적재생 (economic regeneration)

: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 개발, 영세 자영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근린의 경제적 활력과 개별가구의 소득이 증진되는 상태

□ 사회적재생 (social regeneration)

: 민관 파트너십과 주민참여에 기반한 복지,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지원과 거주자간의 신뢰, 유대, 협력, 소통, 상호부조 등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생활여건 및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거나 유지되는 상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재생의 융합 : 통합적 마을재생

지역기반형 사회경제적 조직은 '마을경제'에 기반하여야 한다.

□ 마을경제

소생활권을 같이 하는 근린단위의 가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거나 지역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공급, 유통 체계를 망라하는 개념

➡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적절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경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함 (수요 기반 공급)

'사회서비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사리상술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 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재생의 융합 : 통합적 마을재생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이 되는 사회서비스의 범주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 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등)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재생의 융합 : 통합적 마을재생

□ 마을재생의 예 : 마을경제에 기반한 물리,경제,사회적 재생

사례1) 상수마을의 동네목수 : 물리적(주택개량,지치적 공공시설물), 경제적(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회적(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마을계획 수립)

사례2) 두꺼비하우징 : 물리적(주택개량 및 신축, 도시농업)
경제적(단지민 고용 주택관리,임세자영업 일감배분),
사회적(주민협의회,단지내 필수적인 복지서비스 확충)

사례3) 길음뉴타운공동체사업단 : 경제적(공동택배사업단, 요양등 사회서비스 마을기업), 사회적(품앗이돌봄, 주민이 창조하는 문화예술 체험, 임차인대표회의 등 자치활성화)



주요사업

① 단독, 다세대 등 주택관리사업

②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③ 주민지원 및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④ 마을 만들기 사업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재생의 융합 : 통합적 마을재생

사례4) 브리스톨의 '하트클리프와 위디우드'(Hartcliff and Withywood)

브리스톨 남부 외곽지역은 1980년대부터 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과 가난의 내물림으로 소외가 심화되었다.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기업인 '하트클리프와 위디우드'는 지역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에게 고용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직경제 부문의 성장을 통해서 주민조직의 성장기반을 조성했다. 이 과정은 지역기업을 포함한 민간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1985년 설립부터 2005년까지 1,5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왔으며, 100명 이상의 스텝이 220개 이상의 사업체의 창업과 확장을 지원했다. (정윤희 외: 2010, 123).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재생의 융합 : 통합적 마을재생

사례4) 리버풀의 '엘더니언즈'(Eldonians)

리버풀 동부 외곽의 '엘더니언즈'는 1978년 공공임대주택 철거 재개발 계획에 저항하는 주민들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공장폐쇄 등으로 심각한 실업문제와 지역쇠퇴를 겪고 있었다. 먼저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을 했다.

현재 산하 주택조합은 400여 호의 사회주택과 2개의 양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125호의 리스 된 자가주택 관리와 커뮤니티센터 운영도 담당하고 있다. 비 주택사업 부분은 유아원, 마을회관, 난방업체 등의 사회적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0년대 말 단일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지역사회를 위한 고용훈련,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개선, 고용과 지역경제 발전, 사회자본의 형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종균 외: 2007, 12)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 사회적경제적 조직은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의 현실, 근린의 문제(과제)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적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경제적 조직은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매출 창출과 사회적목적 실현이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뒷받침 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 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마을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민, 다양한 민간주체와 함께 마을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수립하기
- 마을재생을 위한 다양한 협력세계를 기반으로 공동실천(co-production) 하기

<주요과제>

마을경제 육성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조직 및 활성화
마을만들기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기업 시장조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

□ 지역주민의 욕구, 수요의 이해와 마을별 과제의 도출

-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수요 파악에 주력
- 마을별 과제는 주민의 참여가 진제될 때 현실적합성을 가질 수 있음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파악과 수요, 과제와의 연결

-사회경제적 조직,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관, 대학, 기업, 전문가를 망라한 자원네트워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함

예) 성북구 사회적경제 수요조사(2011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2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다주체의 협력을 조직화하는 과정

예) 장수마을 대안개발연구모임, 길음뉴타운공동체사업단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지역자원 네트워크 허브 기능

□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자원조직, 전문가, 대학, 기업 등
다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의 마련 : 지역사회 기반 공동실천 과제 도출

예) 마을만들기와 함께하는성북미당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지역복지를 위한 공적공간의 확보와 자원화

사례) 영국의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유허지, 국유지 등의 토지나 비어있는 건물을 마을 만들기 시업체(Development Trust) 등의 지역시민단체가 싼 가격에 매입 혹은 대여해 경영하면서 상출되는 수익을 지역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출처 :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 사회적 기업에 의한 도시 재생》 김영훈, 김기수, 최광복 지)

사례)

길음뉴타운 9단지 커뮤니티 공간확보 시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민관협력의 내실화

□ 거버넌스에서 공동실천으로

사례)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당사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



市政新聞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009면 자치구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구의회 통과 10월말 공포, 주민자치 기능 강화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역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마을 만들기란 물리적 문화적 생활환경을 주민 스스로 개선해 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공동체를 확보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조례 제정으로 성북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된다.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는 입법 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성북구의회에서 의결됐으며 10월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성북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 △주민 조직의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관이 주도하는 정면형거 위주의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동네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전통과 정서를 보존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자생적인 참여와 자치, 함께하는 돌봄이 있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 조직

- 주민 자율 참여와 공공 지원으로 마을공동체를 가꾸어 나갑니다.
- 고향같이 오래 살고 싶은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로 바뀌어 갑니다.
- 부모와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며 배우는 돌봄문화가 형성됩니다.
- 마을안전망이 구축되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동네가 됩니다.
-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문화마을로 모습이 바뀝니다.
- 주민 힘으로 일궈낸 마을기업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마련해줍니다.

희망 서울 시정계획(2012)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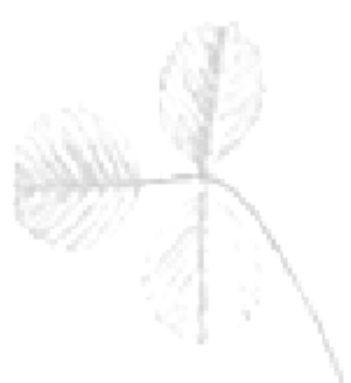


제4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토론문

곽재윤 교육홍보팀장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토론문

곽재윤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교육홍보팀장)

1.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컨설팅, 코디네이션, 교류, 파이낸싱, 정보, 로비, 경영, 네트워킹, 연구, 훈련 등의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Technologie-Netzwerk Berlin e.v., 2001)

김중수박사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자본의 집적과 확산, 재생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적경제의 출발점에서 이러한 입장으로 실천하는 조직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정부의 행정 전달체계 성격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로 전락하거나, 옥상옥의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포괄하는)이 생겨나고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정부 행정전달체계를 넘어 큰 틀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한국의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정부재정 의존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 및 생태계구축이라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2. 유럽의 중간지원조직

유럽은 사회적경제조직 연합체들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협동조합 연합체가 중심이 되는 중간지원조직들인 영국의 CDA(협동조합개발기관)와 스웨덴의 LKU(협동조합개발기관)는 일반 컨설팅 조직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보여주지만,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설립, 지원한다는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특히 잠재적인 서비스 대상자들과 기왕의 서비스 대상자들에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영리목적의 컨설팅 조직 보다는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 에서는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연합체와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합체들, 그리고 지역수준의 네트워크에서 개발/지원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점차 공공부문이 이러한 기능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변화된 정책/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연합체들이 단순한 회원들의 대표체 기능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를 통해 회원들에 우호적인 정책/시장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회원들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지원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송두범센터장은 충남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일본 커뮤니티비즈니스 및 NPO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종합하여 네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 둘째, 사회적경제 조사·교육·연구 및 정책개발,
- 셋째, 사회적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경영지원,
- 넷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등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현실

- ① 정부프로젝트의 한계
 -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전달체계로 역할을 담당함
 - 이러한 제도적 위상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에 장애로 작용함.
- ② 과도한 실무부화
 - 정부의 행정전달체계로 기능하면서 행정실무에 얽매이는 경향 존재
- ③ 전략과 일관성의 부재
 - 지역 차원의 전략보다는 정부 지침에 의한 역할 수행으로 지역에서 전략과 일관성이 부족함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전략

- ① 네트워킹
 - 지역의 사회적경제 및 다양한 자원들과 종적, 횡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사회적경제 논의의 공식적 공간 확보 및 소통의 기회 제공
 - 협의회,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운영
- ② 철학과 방향 설정
 - 관성화 경계
 - 사회적경제에 대한 합의와 지역 중장기 방향 모색단위
- ③ 전문성확보
 - 행정전달체계로서의 전문성 확보
 - 인사, 노무, 회계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력 구비
 - 사회적경제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자원 동원능력 향상
 - 사회적경제 정책생산단위 기능 강화

4. 사회적경제조직의 과제

한국의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주에서 말씀하시는 경험과 우려는 이러한 상황의 반증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의 정책을 사회적경제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활동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시기이며 과제를 살펴보면,

1) 재정자립도 향상

- ① 유럽의 사회적경제지원조직들은 나라마다 편차가 있지만, 일정하게 다양한 공공부문의 자원을 지원받고 있음. 이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② 향후 한국의 과제는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여 행정전달 업무 이외에 사회적경제지원을 위한 본연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③ 이를 위해 회원사업, 전문컨설팅, 상호부조 등의 다양한 유럽의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역할 정립

- 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향후 몇 년간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② 한국은 제도적 성격으로 볼 때 중간지원조직의 건설성이 지역 사회적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됨.
- ③ 중간지원조직은 조직유지를 위한 전망 보다는 향후 유럽에서와 같이 당사자조직등에 상당한 역할을 위임하는 고민이 필요함, 중간지원조직은 이러한 방향에 지원이 필요.
- ④ 한국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공공부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해야 함.
- ⑤ 한국의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지역사회 내 담론형성과 행정전달을 넘어 실질적 지원 역량을 갖추어야 함.

5. 발제에 대한 의견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정부 주도 정책에 의해 시행된 중간지원조직의 한계에 대해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행정지원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적경제 및 생태계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활동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기초지자체 단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려면 전략과 사람(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과 논의와 소통을 함께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자원들과 종적, 횡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독려, 제안, 지원, 지

지하여, 각 네트워크가 연대와 호혜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행정조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을 반대하기보다는 사회적경제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활동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사회적경제 조직과 마을만들기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 과제를 도출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참여 기반의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 구성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라 생각되며, 마을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광역 단위뿐만 아니라 기초 단위의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illegible]

